

멈춰선 글로벌 공급망... 제네시스는 달리고 싶다

바이러스가 던진 숙제... '부품 중국 의존' 어찌할꼬?

중 부품난에 5공장 생산라인 중단
신형 'GV80' 생산 2라인만 가동
대책 논의했지만 뾰족한 묘안 없어
중 공장 중단 길어지면 우려 커져
지엠·르노 등 도미노 중단 가능성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생산라인.

/뉴시스

현대자동차 공장이 결국 멈춰섰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부품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대차 울산5공장은 생산을 중단했다. 중국에서 공급받던 부품이 현지 생산 중단으로 동이 나면서다. 5공장은 제네시스 G90와 G80, G70 등을 생산한다. 신형 모델인 GV80을 생산하는 2라인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주말 팔리세이드

생산 라인 특근을 중단하며 부품 재고 소진에 대응해왔다. 그럼에도 결국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전 공장 운영위원회 긴급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떤 부품 부족으로 인해 5공장에 한해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것"이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드라인'은 5일에서 6일경으로 추정된다. 중국 준절을 대비해 비축했던 재고가 바닥나는 시기다. 중국 정부가 오는 9일까지 공장 가동 중단을 지시한 만큼 일주일 가까운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생산 중단 지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화성과 광주공장에서 생산 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쌍용차는 이번주 조업을 완전히 중단했다.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도 생산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며칠간은 무리가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량 부족을 겪는 부품으로는 '와이어링 하니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량을 조립하기 전 먼저 깔아야 하는 배선으로, 국내 업체는 물량 대부분을 중국 엔타이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부품이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상태다. 중국 공장 중단이 장기화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품 공급 다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노조 등은 중국으로 이전한 생산 라인을 다시 국내로 옮겨와야 한다는 요구를 제시할 전망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강 연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개강 미루고 행사 취소... 대학가 '비상'

경희대·서강대·중앙대 등 개강 연기 입학·졸업식도 취소하거나 미루기도
교육부 '개강 연기 권고' 검토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대학들의 크고 작은 행사가 줄줄이 취소나 연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개강을 1~2주 연기를 결정했고, 다수 대학들도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대학 학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만큼 국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개강 연기 권고를 검토 중이다. 동국대는 4일 오는 13일 예정된 2020년 봄 학위수여식을 8월 가을 학위수여식과 통합해 개최하는 등 주요 학사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학위증명서는 교학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 25일 예정된 신입생 입학식, 신입생 새터(2월중), 대학원과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2월중), 전체교육회의(2월24일) 등도 모두 취소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메뉴얼 또는 영상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25일 예정됐던 올해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은 물론 21일 학위수여식, 학내의 특강과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학위증은 각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토록 했다. 연세대는 지난 3일 입학식과 학위수여식, 총장 취임식, 교직원 수양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입학 행사와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모두 취소하고 개강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희대도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하고 개강을 1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대도 1학기 개강을 내달 16일로 미루고 14일 예정인 졸업식도 8월에 열리는 하계 졸업식과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도 23일 졸업 예배와 24일 학위수여식을 취소했고, 성균관대도 입학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성신여대도 25일 예정인 학위수여식과 11일부터 3일간 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신입생 환영행사를 취소했다. 앞서 서울대 등 서울 시내 대학들은 본부 주관이나 총학생회 주관의 신입생 환영행사나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하고 단과대별 행사도 취소를 권고하는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했다. 대다수 대학의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취소나 연기가 예상되고, 다수 대학에서 개강 또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hys@

車 이어 배터리·반도체·항공업까지 '코로나 리스크'에 산업 생태계 휘청

자동차뿐 아니라 중국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던 국내 산업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뒤흔림을 맞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부품 재고 소진에 따라 쌍용차가 4일부터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고 현대·기아차도 특근취소 등 생산속도 조절에 이어 조만간 생산라인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자동차 조립공장 전체에서 배선 문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자동차 조립 초기 공정에 설치하는 부품으로 차량 바닥에 모세혈관처럼 배선을 깔아야 그 위에 다른 부품을 얹어 조립할 수 있다. '코로나 리스크'에 국내 산업계 전체가 타격을 맞고 있다. 특히 잠시 가동 중단에도 큰 비용을 치뤄야 하는 디스플레이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모양새다. LG디스플레이는 엔타이 액정표시 장치(LCD) 모듈 공장을 지방정부 권고에 따라 준절 연휴가 연장돼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다. 난징 공장도 지난 주말부터 오는 9일까지 운영을 멈추기로 했다. 다만 폐쇄를 생산하는 광저우 공장은 재가동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아직 가동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쑤저우·텐진·동관에 공장이 있지만 현재 가동률만 조정 중에 있다. 삼성전자는 가전 부문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는 장수성 쑤저우 소재 가전 공장의 가동을 오는 8일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내 최대 상하이 플래그십 매장도 지난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매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중국 내 첫 플래그십 매장이다. 상하이 최대 변화가인 난징동루의 애플스토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전경.

/LG디스플레이

LGD, 현지 LCD모듈 공장 '스톱' 반도체, 생산라인 최소 인력 가동
항공업계 中 전노선 비운항 검토 조선사·철강업계 상황 예의주시

어 맞은 편에 위치한 대규모의 매장이 다. 국내 화학 업계도 위기를 맞았다. LG화학은 베이징과 광저우 내 편광판 공장을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텐진 자동차 소재 공장도 멈춰섰다. 또한 난징 배터리 공장도 지난 주말부터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이노베이션도 창저우 배터리 조립 공장을 오는 9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장수성 관내 엔칭 배터리 공장도 준제 연휴부터 중단된 상태다. 반도체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삼성전자 시안과 쑤저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라인은 준절 연

휴에도 최소 인력으로 가동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을 최소 인력으로 가동 중이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상황에 대응 중이다. 항공업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해 중국 전 노선에 대해 비운항 검토에 들어갔다. 국적 항공사 8개가 기존 운항하던 100개 노선 가운데 현재까지 55개가 비운항 결정됐다. 또한 국내 조선사들은 아직까지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철강업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철강 제품 수요 감소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여파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얼어붙으면서, 제3차 물류업체들 역시 기업활동이 멈춘 상태다. CJ대한통운 등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기업들의 생산이 멈추면서, 이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 전달하는 3차물류 활동도 같이 얼어붙었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